

# 공 개 질 의 서

---

수 신 : 김진표 국회의장

---

발 신 :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

제 목 : 김진표 국회의장의 '동성애·동성혼 치유회복운동' 발언에 대한 공개질의

---

발 신 일 : 2022년 12월 1일(목) / 총 3매

---

담 당 : 박한희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집행위원  
[lgbtqact@gmail.com](mailto:lgbtqact@gmail.com) /

---

1. 인권과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2.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이하 ‘무지개행동’)은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등을 이유로 한 모든 차별과 혐오에 반대하고 성소수자 인권을 증진하기 위하여 2008년 결성된 성소수자 인권운동의 상설연대체로서 현재 총 43개 단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 지난 11월 25일 김진표 국회의장이 나경원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기독교계에서 저출생·인구감소 해결을 위해 △자살 예방 운동 △미혼모 정식 가정 인정 △동성애·동성혼 치유회복운동을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는 사실이 다수의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습니다.
4. 여기서 ‘동성애·동성혼 치유회복운동’은 보수개신교 단체에서 이야기하는 이른바 ‘탈동성애 운동’과 같은 것으로서, 이들 모두 개인의 성적지향·성별정체성을 질병 내지 종교적 죄악으로 보고 이를 강제로 변경하려 시도하는 소위 “전환치료(conversion therapy)”를 의미합니다.

5. 그리고 소위 “전환치료”에 대해서는 의학적으로 근거가 없고 비윤리적일 뿐만 아니라 성소수자의 존엄과 평등을 침해하는 중대한 폭력이라는 점이 이미 국제적으로 확립된 견해입니다. 2008년 미국심리학회는 ‘성적지향에 대한 올바른 치료적 대응’이라는 보고서에서 “현재 효과가 입증된 동성애 전환치료는 존재하지 않으며”, “성적지향을 억지로 바꾸려는 시도가 오히려 동성애자의 정신건강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2018년 세계정신의학회 역시 성명을 통해 “동성애 치료라는 것은 편견과 차별이 확산되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으며, 잠재적으로 해로울 수 있다. 질환이 아닌 것을 ‘치료’한다고 주장하면서 제공하는 모든 개입(intervention)은 전적으로 비윤리적이다”고 하였습니다.
  
6. 또한 유엔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독립전문가는 2020. 5. 1.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보고서(A/HRC/44/53)에서 “모든 소위 ‘전환치료’ 관행은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이 이질적인 것이며 벗어날 수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이는 인간 존재에 대한 가장 비인간적인 이해방식이다”고 지적하며, 각 국가가 “전환치료” 관행 실시에 대해 적극적 조사를 하고 필요에 따라 이를 기소 또는 처벌해야 한다고 권고하였습니다.
  
7. 이처럼 “전환치료”는 의학적으로 근거가 없는 것을 넘어 성소수자의 정신건강에 해를 가하는 행위이며 국제인권규범에도 명백히 반하는 인권침해입니다. 그럼에도 국회의장이 공적인 자리에서 이러한 시도를 하나의 사회운동인 것처럼 소개한 것은 인권과 평등의 원칙을 준수해야 할 입법부의 대표로서 결코 해서는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8. 이에 대해 국회의장실은 언론을 통해 “김진표 국회의장이 가치 판단을 실어서 한 이야기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종교계의 흐름을 나열한 것”이라고 해명하였습니다. 그러나 저출산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기독교나 카톨릭계에서 동성애·동성혼 치유 회복 운동도 포함해 한꺼번에 생명존중 운동으로 승화하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이야기한 것은 이러한 흐름 자체가 타당하다는 생각을 드러낸 것입니다. 설사 의도없이 그냥 사례를 소개한 것에 불과하더라도 이에 대한 아무런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한 것 자체가 문제라 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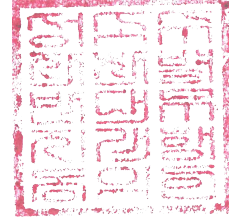
9. 김진표 국회의장은 당선 인사에서 국회를 대화와 타협, 조정과 중재의 전당으로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성소수자의 존재를 부정하고 이를 교정하려는 “전환치료”는 폭력일 뿐이며 이는 타협과 조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김진표 국회의장께 이 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며, 무지개행동은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본 질의서 및 답변은 언론과 시민들에게 공개될 예정이니 책임있는 답변을 12월 8일(목) 18시까지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김진표 국회의장은 성적지향·성별정체성을 강제로 변경하려는 시도인 소위 “전환치료”에 대해 어떠한 입장을 지니고 있습니까?
- 김진표 국회의장은 11월 25일 발언에서 언급한 ‘동성애·동성혼 치유회복운동’이 소위 “전환치료”를 의미한다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한다면 위 발언을 철회하고 성소수자들에게 사과할 의향이 있습니까?

2022. 12. 1.

##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사) 신나는센터, 30대 이상 레즈비언 친목모임 그루터기, 경남퀴어문화축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노동당 사회운동위원회, 녹색당 소수자인권특별위원회, 다음: 다양성을 향한 지속가능한 움직임, 대구퀴어문화축제, 대전 성소수자 인권모임 솔롱고스, 대한불교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레주파, 무지개예수, 무지개인권연대, 미래당 성평등위원회, 부산 성소수자 인권모임 QIP, 부산 퀴어문화축제 기획단, 서울인권영화제,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성공회 용산나눔의 집 (사회적소수자 생활인권센터), 성별이분법에 저항하는 사람들의 모임 '여행자', 성소수자 알권리보장지원 노스웨스트호, 성소수자부모모임,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언니네트워크, 이화 성소수자인권운동모임 변태소녀하늘을날다, 인제대학교 성소수자동아리 IQ, 전라북도 성소수자모임 열린문,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 제주권역 퀴어 커뮤니티 귀여움QUTE,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진보당 인권위원회, 청소년 트랜스젠더 인권모임 튜립연대, 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멍둥, 트랜스젠더인권단체 조각보, 트랜스해방전선,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농인LGBT 설립준비위원회,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청소년청년감염인커뮤니티 알,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HIV/AIDS 인권연대 나누리+ (43개 단체)